코스닥 벤처펀드 간담회 모두 말씀

1. 인사말씀

안녕하십니까.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.

잘 아시는 것처럼 **코스닥 벤처펀드** 판매금액이
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되어 **2조원**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

과거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과 비교할 때
유례가 없는 일로 코스닥 벤처펀드가
자본시장의 "**히트상품**"이 된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.

< 주요 세제혜택 금융상품 출시후 4주차 판매 금액 >

구 분	소득공제 장기펀드[1)]	해외 비과세펀드[2)]	코스닥 벤처펀드
4주차 판매금액	226.3억원	2,084억원	19,469억원

1) '14.3월 출시, (가입 자격요건)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, (납입한도) 연 600만원 내
2) '16.2월 출시, (납입한도) 1인당 3천만원 등

코스닥 벤처펀드가
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**마중물** 역할과
혁신벤처기업 등에 대한 **모험자본 공급** 확대에
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
시장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코스닥 벤처펀드의 **초반 돌풍**은
공모주 배정에 따른 ❶**수익률** 기대,
❷가입에 제한없는 **소득공제** 혜택,
❸최근 코스닥 **시황** 등에 기인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,

무엇보다 여기 계신 **자산운용사, 판매사 그리고 금융투자협회**가
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.

2.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상반된 시각과 우려

코스닥 벤처펀드로 쏠리는 자금에 대해
상반된 시각과 **우려**도 있습니다.

크게 세가지로 요약한다면,
❶과연 **코스닥 시장 활성화**에 도움이 될 것인지,
❷**사모펀드 비중**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,
❸**공모펀드**가 사모펀드에 비해 **운용규제를 충족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닌지** 등에 대한 것입니다.

❶첫번째 의문은 코스닥 벤처펀드가
코스닥 시장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**비상장기업,**
벤처기업의 CB, BW 등에 주로 투자한다는 문제 제기입니다.

❷두번째 의문은 사모펀드의 비중이 높아
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
사모펀드 중심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.

❸세번째 의문은 **공모펀드**가
무등급 CB, BW를 편입할 수 없어
사모펀드에 비해 **운용규제를 충족**하기가 **어렵고**
펀드 규모 증가에 **한계**가 있다는 시각입니다.

저는 이 세가지 우려가
공모, 사모펀드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
제기되는 자연스러운 이슈라고 생각합니다.

사모펀드는 주로 벤처캐피탈의 관점에서
초기 기업, **비상장기업**의 Seeding → Series A → Series B 등
단계적인 관계형 투자를 해왔습니다.

이러한 **벤처투자**는 **높은 투자 리스크, 창업자의 지분희석** 등으로 보통주보다는 **CB, BW와 같은 채권**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.

또한, 벤처기업 등 **발행기업 입장**에서도 CB, BW 등의 채권은 신용평가 비용이 높기 때문에 **공모 발행보다는 벤처캐피탈**이나 **사모운용사** 등을 대상으로 **사모 발행**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이러한 점에서 사모 운용사가 CB, BW에 많이 투자하는 것은 **발행 기업**(공급자)과 **사모 운용사**(수요자)의 **균형(equilibrium)**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반대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투자·환매할 수 있는 **공모펀드**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**비상장 CB, BW 편입에 한계**가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공모펀드는 그 특성상 **상장주식 평가·트레이딩**에 **강점**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.

3.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정책방향

짧은 기간에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에 약 5,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모인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,

사모펀드 위주의 경향이 지속될 경우 국민에게 새로운 **투자기회를 제공**하고, 혁신·벤처기업에 대해 **모험자본을 공급**한다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**도입 취지**가 **퇴색**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코스닥 벤처펀드가 **본래의 취지**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**제도 개선방안**을 업계, 전문가들과 모색해 왔습니다.

비상장기업, 벤처기업 등 초기투자에 적합한 **사모펀드**는 CB, BW 중심의 **비상장단계 초기투자**에 보다 **특화**하고,

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**공모펀드**의 경우 공모주 중심의
상장 주식에 보다 원활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

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와 **사모 코스닥 벤처펀드**간
균형 발전과 **역할 분담**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.

우선, 대형펀드에 불리한 공모주 배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
펀드 순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**공모주가 배정**되도록
별도의 **공모주 배정기준을 마련**했습니다.

공모펀드의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
적극적 자산운용을 제한하는 **운용규제를 완화**하고
공모주 신청물량 제한 관행 등도 개선할 계획입니다.

아울러 사모펀드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
일정기간(예: 1년6개월) **이상의 장기 투자**에 한해
공모주가 배정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입니다.

4. 마무리 말씀

오늘 간담회는 **코스닥 벤처펀드**가 **초반 돌풍에 이어**
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새롭게 마련한 **개선방안**을 점검하고
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.

코스닥 벤처펀드 관련 **어떤 내용**이든 **기탄없이**
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**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**를 위해
지속적으로 **제도 개선 필요성**을 점검하는 등
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

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
여러분들께 **감사의 말씀**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